

중장년 위기, 복지국가의 긴급한 과제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중장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 인력이지만, 그 내면은 고용 불안정과 관계 단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주로 50세를 넘어가면서 주된 일자리에 서 밀려난 이들은 비정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내몰리고 있다.

언제 다시 일터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급격히 낮아진 임금은 자존감을 허물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잠식한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면서 외로운 섬이 된 중장년들이 늘면서, 일부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다.

중장년의 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중장년을 오직 경제활동 인구로만 간주하며 이들의 생존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미래의 노인이 되어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빈곤, 건강보험, 돌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보편화로 중장년 일자리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에게는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력난을 겪는 산업 영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해야 한다.

한편, 사고나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크게 저하된 중장년을 위해 노인처럼 공공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을 넘어 중장

년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다.

이와 함께, 우울, 고립, 은둔형 중장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크다.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집 밖 사회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질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지역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중장년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년은 우리 사회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곧 미래의 노인이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장년의 돌봄과 복지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대와 공존을 위한 과감한 국가적 결단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K-엔비디아 골든타임



기자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인공지능(AI) 기술은 이제 산업 패권을 가르는 핵심 무기가 됐다. 한국이 독자적 AI 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내 생태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특히 AI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와 제도 보완이 맞물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가능성은 이미 증명됐다. 한국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는 메타의 8억달러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오픈 AI와 손잡았다. 이후 GPU 없이 지속가능한 엔터프라이즈 AI미래를 시연했다. 최근 퓨리오사AI는 자체 AI 추론 가속기 RNGD(런게이드)를 활용해

gpt-oss 120B 오픈소스 모델을 구동했다. gpt-oss 120B는 오픈AI가 공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퓨리오사는 두 개의 RNGD칩만으로 대규모 모델을 실시간 챗봇에 적용하며 GPU 대비 훨씬 낮은 에너지 소비와 표준 데이터센터 수준의 전력 예산 안에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중고 규모 데이터센터에서도 고성능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다. 더욱이 AI칩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흐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전력 효율적이고 병렬화가 극대화된 구조는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모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GPU 인프라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비용과 냉각 설비가 부담으로 떠올랐

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 기술이 계속 등장하려면 결국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선 질 좋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원하고 해외 출원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양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경쟁력 없는 특허를 국내에만 쌓아두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AI 스타트업 평가지표 역시 유연해져야 한다. AI산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장 이후 기업 밸류에이션이 반토막나는 경우가 많다. 장기 연구개발보다 단기 실적에 쫓기게 만드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내 AI 기업들은 '버티기 경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K-엔비디아를 실현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산 AI반도체 생태계를 키워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시작이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7일 (음 7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사방이 잠깐하니 곧 새벽이 온다. 48년생 혼자서 가는 출장길. 60년생 돈을 빌리면서 주식은 하지 않도록. 72년생 오늘이 내일을 뒷받침하니 겸손으로 행동. 84년생 돈이 없으면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 집을 지켜야.



37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더 노력. 49년생 현 상황이 천국이니 환경을 바꿀 생각은 접는 것이. 61년생 동료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접어보자. 73년생 실천하지 못할 계획이라도 해보자. 85년생 나를 위해 살고 열심히 일하자.



38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50년생 빔내서 빔을 갇는다. 62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 74년생 어디를 가든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하지 말았는데. 86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39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51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시작이니 다른 이성 관계는 정리를. 63년생 무난한 것이 결과를 원만히 할 터. 75년생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87년생 오후에 뚝딱의 좋은 일.



40년생 매수문서는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52년생 환심을 사서 투자하게 하려는 의도를 알아채도록. 64년생 자영업은 잘 생각해야 한다. 76년생 이별하고 나서 후회하니 기본대로 하는 안행을 조심. 88년생 작은 구멍이 큰일을 만든다.



41년생 거래에 인정이 있게 해야. 53년생 권불심년생은 재물에도 마한가지로 적용되니. 65년생 봄의 향연에 능력이 넘쳐난다. 77년생 좋은 일이 거듭될수록 약속을 중요하게. 89년생 기러기발을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게 하니 소리가 나겠는가.



42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꾸니 무덤도원에서 대접받는 기분이다. 54년생 적당한 경쟁은 서로에게 득. 66년생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견디자. 78년생 내가 하는 생각은 상대도 할 수 있으니. 90년생 세월 앞에서 무슨 사망 타령인가.



43년생 꽃만 피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55년생 아름다운 여자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67년생 오후 5시부터 운전 주의. 79년생 사랑은 허망하기도 하다. 91년생 진실이라고 우기는 것은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는 일일 수도.



44년생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기 마련이니. 56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삼가라. 68년생 멀리서 온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80년생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보라 꿈은 이루어진다. 92년생 하나뿐인 인생을 건강하게.



45년생 행동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57년생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이 보람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도록. 69년생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 81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마티도 부담이. 93년생 친구 간의 우정이 남아있어 모임에 간다.



46년생 손조로운 하루이다. 5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당연하지만. 70년생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 82년생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진다의 기운에서 벗어나야 발전. 94년생 이혼은 지옥행이니 기술을 배우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자.



47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나 인생은 여차피 혼자 가는 여행. 59년생 오늘이라도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자. 71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편하다. 83년생 아침부터 종일 운전 천천히. 95년생 배우자에게 주려는 생각을 접고 자금계획을 세우도록.



김상회의四季

공생

자연계에서는 같은 부류가 아니더라도 종류가 다른 동물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악어와 악어새, 총매화와 곤충, 콩과 식물과 뿌리혹박테리아나 벌과 꽃들이 그러하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당장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 보여도 한두 단계만 거치면 도움이 되는 예도 있다.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지라 시간이 걸릴 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를테면 말벌이나 거미 같은 혐오(?) 곤충들의 존재가 그러하다.

말벌은 한 번이라도 잘못 쏘이면 생명을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작은 곤충 한 마리라 하더라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해마다 봄이나 가을 말벌에 쏘여 병원 신세는 물론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뉴스를 탄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보자면 말벌은 농작물에 손해를 끼치는 해충을 먹어 치우니 만약 말벌이 사라진다면 해충들은 더 난리를 피게 되고 지구 전체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식량부족 사태도 발발하게 된다고 한다. 말벌을 조심하고 피하기는 하되 적대시하며 말살할 일이 아니다.

거미 역시 보기에는 징그럽고 무섭지만,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는 적고 이런저런 해로운 벌레를 먹이로 삼으니 일종의 해충 천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하듯 세상의 모든 생명은 나름대로 존재 의미가 있다. 사람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살 수 없다. 못지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이나 곤충들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새들도 계절에 따라 이동할 때 우두머리가 제일 앞에서면서 시뒀형으로 대열을 이루어 움직이고 동물들 역시 떼를 지어 먹이를 찾아 나서고 다른 동물과 맞선다. 단체가 혼자일 때 보다 위험의 대처나 먹이 사냥에 유리함을 아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6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이드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2	8	6	1	9	2	9
8	9	2	1	6	9	6	8	2
9	1	8	2	9	6	8	6	1
1	2	9	6	2	8	9	1	6
2	6	8	9	6	8	1	2	9
9	8	2	1	6	9	8	9	1
6	1	2	9	6	8	9	1	6
9	6	1	2	9	6	8	9	1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3650

결론스도쿠110

초하스도쿠120

3		1		8	6	7	4	
	8		6					
	4	9	1					6
							8	
6	1	8				9	7	2
	2							
2					7	6	9	
				8		2		
	5	4	9	2		1		7

6			3		4	2	8	
3			7	8	4			
8								
	1		4		5		9	2
	5						4	
1	6		8		9	7		
								5
			5	9	1			3
5	7	6			3			9